

정의로운 세상으로 가는

녹색도시 부산의 자전거도로지도

해운대편





 녹색도시부설추진협의회
 부산광역시 영도구 중리대로 1001 시영사 2층
 TEL. 051-889-6824~6


 녹색도시부설추진협의회
 Local Agenda 21 for Busan



정의로운 세상으로 가는
 녹색도시 부산의
자전거 도로지도
 해운대편

정의로운 세상으로 가는
 녹색도시 부산의

정의로운 세상으로 가는 

녹색도시 부산의 자전거도로지도

해운대편

자전거 지도를 만들면서

- 1 화석연료의 과도한 사용으로 말미암아 기상이변, 지구 온난화 등 많은 문제가 빚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우리 스스로 책임을 지어 하고 또 책임 있는 행동으로 나서야 한다. 녹색으로 위장한 녹색운동이 아니라 지구 생태계의 조화로운 삶을 위해 스스로 책임지는 겸손한 생활을 실천해야 한다. 이런 뜻에서 자전거를 타기로 했다.
- 2 광개는 얼마든지 될 수 있다. 부산은 산지가 많고 도로가 위험하며 산부도로 비탈길을 어떻게 자전거로 올라가느냐 등등. 그러나 우리가 자전거를 끌고 도로로 나서지 않는 한, 이 위기를 개선할 방법은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이 대세를 이룰 때, 자전거 도로가 만들어진다.
- 3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하는 자전거는 레저나 스포츠가 아니다. 강변길을 달리기 위해 굳이 자동차에 자전거를 싣고 가서 즐기는 일은 에너지를 고프로 소비하는 삶이다. 건강을 위해 운동 삼아 자전거를 타는 것은 귀중한 에너지를 애만 태워 낭비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삶이 근육이 필요로 하는 운동을 저절로 포함할 때 이게 보다 생태적이고도 온전한 삶이다.
- 4 우리가 의도하는 자전거 타기는 생활에서의 에너지 절약이자 화석연료 마수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를 타면서 화석연료 사용량을 줄이고 진정한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해 결국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자 한다.
- 5 무엇보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해야 한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자전거를 끌고 나와 올라타고 달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목적지를 향해 안전한 주행계획을 세우고 조심스럽아야 한다. 바로 이 때, 보다 안전하고 편한 길을 설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 자전거 지도를 만들었다.
- 6 사물관달인 길의 안전 정보를 지도상에 나타내고 자전거 이용에 필요한 정보나 출고를 제공하고 자 하였다. 우선 길을 ①자전거 전용도로(안전), ②차량 운행은 잦으나 주행을 권장할 만한 도로(비교적 안전), ③차량 운행량이 많아 위험한 도로로 나누어 표시했다. 실적으로 인도 위에 철만 달리해서 자전거 도로라고 호도해 놓은 것은 무시했다. 우리는 이길 자전거 도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안전운행이 우선이라면 조금 둘러가도 안전한 길로 넘어면 되고, 경향과 자신이 있으시면 조금 더 지름길로 잡으면 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안전이라는 점을 다시 또 강조하고 싶다.
- 7 물론 우리가 만든 지도는 해운대구 일원일 뿐 아니라 완전하지 않다. 이 점은 죄송하다. 그러나 길은 오늘도 계속해서 변하고 있다. 새로운 시설물이 생겨나고 길도 바뀌며 교통량도 변화한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 지도를 완성해주시길 바란다. 새로운 정보를 그려 넣고 오류를 수정해서 세상에서 하나뿐인 '대동여자전거지도'를 만들어 가시길 기대한다.
- 8 이 지도는 2013년에 만든 연재구편에 이어 두 번째 작업이다. 우리의 또 한 의도는 이 지도를 본오 해서 부산시에서 타 나온 자전거 지도 제작에 나서는 동인(動因)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길은 변한다. 낡은 정보는 왜곡당하기 마련이다. 지속적인 보완이 있어야 하고 웹상의 공간도 마련되어야 한다.
- 9 자전거를 타는 사람도 안전해야 하지만 걷는 사람의 안전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속도를 줄이고 운행규칙을 지켜야 한다. 멀리 가는 마음으로 느긋하게 타시길 바란다.
- 10 간단한 정보는 직접 할 수 있어야 한다. 알아야 애정이 생기는 법이다. 자전거에 관한 기계적 원리나 과학적 지식도 공부하시길 바란다. 분명 더 재미있게 자전거를 타는 기쁨이 되리라 믿는다.

녹색도시부산추진협의회 녹색도시계획분과



자전거,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아름까지 매력

자전거를 안타는 사람은 모르는 원더풀 라이프

윤준호·반이정·지음·차우진·임익중
박지훈·서도은·조약범·김하림(지성사)



● 교통비도 들지 않는다. 운동부족을 고민하면서 운동기구를 사고 헬스클럽을 다닌 돈도 필요하지 않다. 적절한 운동과 안장 위의 명상은 관병과 번개를 잠재우며 병원 갈 일을 만들지 않는다. 여기 시간에 이르지 않는 놀이거리를 구매하지 않아도 된다. ... 또 비용지출 없이 아다다지 갈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이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경제적 이점을 준다. (p. 29)

● 집에 잠깐 돌아와서 가장 싸고, 맛있고, 건강에 좋은 밥을 해 먹고 다시 나갈 수도 있다. ... 그 밖에도 도시락은 가난하지만도 우아하게 살 수 있는 기회들이 종종 있는데, 자전거가 그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게 해 준다. (p. 100)

● 혼자서 자전거를 타고 도로로 나가는 건 분명 두려운 일이다. 하지만 나가야 한다. 하나가 나가지 않으면 무리를 지을 수도 없다. 다른 방법을 나는 모른다. 좋은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지기를 기다릴 것인가? 당

신이 도로로 나가지 않는다면 그런 행운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어떤 도시 교통 전문가가 자전거가 다니지 않는 길에 좋은 자전거도로를 만들 수 있겠는가? 아니다 보면 길이 생기는 것이지, 길이 생긴다고 다닐 수 있는 건 아니다. (p. 113)

● 자전거를 충분히 타면, 자전거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자동차가 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자동차와 석유와 화폐의 능력과 역할을 증명할 뿐이다. 하지만 자전거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과 정확히 같은 의미이다. (p. 118)

● 그래서 또는 어쩌면, 내게 자전거는 그 속도감으로부터 나를 분리시키는 일이다. ... 그리고 생각한다. 느리게 사는 게 항상 옳은 건 아니다. 빠르게 사는 게 항상 틀린 것도 아니다. 누구에게나 항상 세 살의 속도 같은 게 있을 뿐이다. 다만 21세기의 서울, 또는 한국이 다른 속도를 선택하게 놔두지 않는다. 그런 문제다. (p. 154)

● 사실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자전거를 내 삶의 가까운 동반자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원할 때 갈 수 있다는 '자유'가 자전거를 타는 가장 커다란 이유다. 즉 자동차나 다른 교통수단에 몸을 맡기고 '수송'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이동'하고 싶은 본능적인 욕구 때문에 나는 자전거를 탄다. (p. 275)

● 그래서 자동차 문명이 심은 인간이 건설한 가장 폭력적인 문명인 지도 모른다. 최소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것은 반대라는 진실이다. ... 결국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어떤 한 개인이 폭력적이어서 문명이란 것이 아니라 자동차와 속도와 석유에 종속된 문명에서 폭력이 자연스럽게 사라난다는 것이다. ... 움직이는 속도가 빨라지면 나 이외의 사람의 의미가 없어진다. 내 주변에서 나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생태계를 구성하는 온갖 생명들도 시속 50킬로미터 이상으로 이동할 때는 나에게 완전히 차단되고 만다. (p. 280)

● 자전거를 타는 것은 닫힌 나 자신을 여는 것이고, 끊어진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다. 지구가 건강하게 살아가기 때문이 아니라 내시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매순간 인식하는 것이다. 폭력적인 별개 아니다. 나 이외의 다른 존재가 가진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다. (p. 281)

● 자전거를 타는 것은 필히 새로운 세상으로 원천히 가는 훌륭한 방법이다. 그래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내게 자전거는 지리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도구를 넘어 문화와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는 멋진 친구가 아닐 수 없다. 작고한 동화작가 권경성 선생이 '승용차를 버려야 파멸도 안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옳은 말이다. 일찍이 1970년대에 어떤 일러스트는 자전거를 '평범'의 도구라고 불렀다. (p. 282)

● 자동차 속도가 줄어들면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도 높아지지만 도로에 더 많은 자전거들이 다닐 수 있게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내가 자전거를 타는 이유는 건강에 좋고 도시에서 버스보다 빨리 이동할 수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야 우리의 인식이 바뀔 것 이기 때문이고, 나아가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 벌이는 전쟁도 조금이나마 줄어들기 때문이며, 내가 사는 이 땅이 소음과 배기기를 비롯한 각종 오염과 파괴로부터 안전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p. 286)

● 인간이 움직이는 데 차를 굴리는 것 외에 배에 탄 1분의 기계력을 같이 이용하는 것으로 가장 큰 에너지 낭비이며, 비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경우다. 그런 이리저는 일로 인류는 도대체 이 지구에 얼마나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시켰으며, 석유를 비롯한 자원을 또 얼마나 착취해 왔던가. 그런 생활에 길들여진 우리는 또 다른 생명을, 타자를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말로만 밟아 왔던가. (p. 293)

● 석유문명에 종속된 사회를, 그리고 나를 자유하기 위해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고, 같은 이유로 체식을 하기 시작했다. (p. 299)

● 환경위기를 초래한 석유와 속도와 자동차 등 체계의 근본적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이고, 새로운 문명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재구성하는 구조를 지적하고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말해야 하는데, 단지 석유를 소비하는 개인들의 의식이고 양심적인 생활만을 촉구하는 것은 화살을 얹힌 곳에 쏘는 것이다. (p. 302)